

문학이론의 새 지평 제시한 '바흐친'

'사회학적 詩學' 정립... 국내에서도 봄

權五龍

문학평론가 · 한국교원대 교수 · 불문학

프랑스 문학평론가 토도로프가 자신의 바흐친 연구서인 「미하일 바흐친: 대화원리」의 서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 “바흐친의 사상은 풍부하고 복합적이며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 사상 자체가 애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의 이유를 토도로프는 여러가지로 밝히고 있지만, 토도로프가 열거하고 있는 내용과 관계 없이 지금 이 간략한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의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그의 이론이 포괄하는 영역의 넓음, 그리고 그의 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가능성의 무궁함에서 온다. 그의 문학이론은 심리학에서 이데올로기 연구의 사회학에까지, 형식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에까지, 언어학에서 그의 독창적인 통언어학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장르론에서 문학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짧은 글에서 그의 문학론의 면모와 함께 그 이상의 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논의의 수준을 대강의 정도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무리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그의 문학이론 중에서 비교적 핵심적인 부분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거니와, 사실은 이것조차도 무리스러운 일이라서 얼마만큼이나 생략과 중복을 피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걱정이 앞선다.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바흐친이 집필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대략 1920년경부터로 생각할 때,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문학연구가 하나의 독립된 정신과학, 혹은 인문과학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있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문학연구방법의 이론화는 크게 보아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 바, 형식주의적 문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적 문학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바흐친에게 있어서도 이 두 방법론이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 각각의 방법론의 한계와 맹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통해 그 나름의 독자적인 ‘사회학적 시학’을 정립해낸다. 즉 형식주의는 문학의 표현수단인 언어를 그 기능적 측면이 도외시된 사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질주의 미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마르크스주의의 반영이론은 문학이라는 상부구조가 단순히 하부구조를 반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러시아 인문학자 바흐친은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통합하여

'사회학적 시학'이라는

독특한 문학이론을 정립했다.

카니발적 세계관과 대화이론에 기초한

그의 사상은 매우 심오하고

복합적이어서 문학은 물론

다른 학문 분야에도

많은 자극과 영감을 주고 있다.

통해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바흐친의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의 이론적 근거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흐친의 독창적인 언어이론이다.

언어와 대화주의

바흐친에 의하면 언어는 결코 그 자체로 순수한 것이 아니다. 언어는 이미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채색되어 있으며, 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은 이미 그가 속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어 있다. 언어는 또한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들에 따라 분화되고, 이렇게 분화된 언어는 언어체계 내부에서 서로 의미론적·이데올로기적 갈등과 투쟁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 그리고 이 의식을 물들이는 이데올로기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바흐친이 말하는 언어의 특성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것이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라는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의 주된 기능을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 발화자와 그 상대자라는 복수 주체를 상정하는 것이고, 이 복수 주체 사이에는 대화적 관계가 수립되게 된다. 이럴 때 언어 = 이데올로기라는 등식관계와 언어의 기능 수행의 장으로서의 대화적 관계를 한데 종합할 때 인간의 언어활동이란 기실 상이한 이데올로기간의 대화관계(그 내용은 주로 갈등과 상충이다)로 귀착되기에 이르는데, 이것은 그의 소설론에까지 이어진다.

일상언어와 시적 언어

소설론에 앞서 바흐친이 행하는 작업은 일상언어와 시적 언어의 구분이다. 일상언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대화 관계에 입각해 있는 多聲 언어인 반면 시적 언어는 시인만의 독백으로 성립하는 單聲 언어이다. 따라서 일상언어는 언어의 진정성을 간직하지만 시적 언어는 이데올로기적인 허위의 언어이다. 그런데 문학 장르 중에서 언어의 다성적이고 대화적인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장르는 다름아닌 소설이다. 그리하여 소설의 문체는 필연적으로 다문체적인 것이 된다.

바흐친은 이러한 문체론적 특성을 통해 소설 장르의 시학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거니와,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그의 소설이론이 종합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같은 소설의 대화적 특성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듯 언어활동이 복수주체와 구체적인 담론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 또한 작가-작품-독자라는 세 구성요소를 그 성립의 절대적 요건으로 하는데, 따라서 소설의 이론은 이 세가지 측면 모두를 한데 종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설과 이데올로기

소설은 바로 이러한 복합적 구성방식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다문체적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소설이 상이한 언어의 식,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한데 섞여 있으면서 서로 충돌하는 장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과 이데올로기의 총체적 개념으로 바흐친은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에 따라 소설의 대화구조의 내용을 말하면 그것은 민중적 세계관(=사육제적 세계관)과 공식적 세계관 사이의 충돌의 구조이며, 그 각각의 세계관이 표현 수단으로 갖는 다성적 언어(대화언어)와 단성적 언어(독백언어)사이의 대립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세계관의 변화의 구조이다. 즉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과정은 민중적 세계관의 확대와, 그와 병행한 공식적 세계관의 위축의 과정으로 귀결되며, 이는 다시 말해 소설이 다른 문학 장르들을 변질시켜 소설화시키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바흐친의 문학사 이론은 바로 이같은 장르의 변천의 역사를 주축으로 하여 전개된다. 소설은 그 자체가 미완성 장르로서 자기변화

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소설은 다른 장르들과의 대화관계 속에서 그 장르들의 담론을 대화화함으로써 소설화시킨다는 것이다.

바흐친 연구 현황

서두에서 이미 말했듯, 이 짧은 글에서 바흐친의 문학이론의 내용을 소개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이므로 차라리 독자들에게 그의 문학론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편이 한결 나을 것이라 여겨진다. 바흐친의 문학이론은 '그에 관한 연구서까지를 포함하여 상당수가 번역·간행되었다. 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바흐친의 저작

- 도스토예프스키詩學 (김근식 옮김/정음사)
- 바흐친의 소설미학(이득재 옮김/열린책들)
- 장편소설과 민중언어(전승희외 옮김/창작과 비평사)
-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송기환 옮김/한겨레)

연구서

- 바흐친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토도로프/최현무 옮김(까치)
- 대화적 상상력/김옥동(문학과학지성사)

번역의 질이 고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예컨대 이득재 옮김 「바흐친의 소설미학」은 무책임한 번역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흐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뜻있는 자료들이고, 또 토도로프의 바흐친에 대한 모노그라피도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이해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동 교수의 「대화적 상상력」은 국내 학자의 것으로는 처음 나온 본격적 연구서인데, 이 책은 바흐친의 문학이론은 물론, 그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폭넓게 섭렵하여 매우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길잡이의 구실을 해준다.이같은 광범위한 섭렵과 소개 그 자체가 이미 바흐친의 대화원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그저 조금 아쉽다면 그 활발한 대화의 장에서 저자의 목소리가 조금 약하지 않은가 하는 것 뿐이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아쉬움이다.